

NH-Amundi Allset 차세대리더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 코드: 26080)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Allset 차세대리더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산업(업종)환경 변화, 기업의 구조 조정, 이익 모멘텀 등에서 주가에 긍정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의 업종대표주(블루칩)의 기대수익률 보다 차등위 종목(엘로칩, 업종 내 시가총액 기준 2위 이하의 종목들을 의미)의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종목(엘로칩)들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NH-Amundi자산운용		
모집(매출) 총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집(판매)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 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2018년 8월 28일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이란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의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참고		

종류(Class)	A1	C1	Ce	Ci	S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터넷 전용	전문투자자, 집합투자기구, 법인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없음	없음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85	1.5	0.5	0.05
	운용 등	운용: 0.54,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450	0.0450	0.0449	0.0449
총보수비용		1.4800	2.1300	1.1299	0.6799
주석사항	<p>(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p> <p>(주2) Class C1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lass C2→C3→C4로 자동전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Ae, C2, C3, C4, Cw, C-P1, C-P2, S-P, AG, CG, C-P1e, C-P2e)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p>				

	<p>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7.04.29 ~ 2018.04.28]</p> <p>(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6)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	---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 제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기준가	<p>· 산정방법</p> <p>-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p> <p>-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 공시방법</p> <p>-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p> <p>-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p>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기본투자전략

- NH-Amundi Allset 차세대리더 증권투자신탁[주식]은 산업(업종)환경 변화, 기업의 구조 조정, 이익 모멘텀 등에서 주가에 긍정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의 업종대표주(블루칩)의 기대수익률 보다 차등위 종목(옐로칩, 업종 내 시가총액 기준 2위 이하의 종목들을 의미)의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종목(옐로칩)들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전략의 기본으로 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목 선정전략

- 주가의 상대적 수준, 해당 산업(업종)의 환경 및 미래 전망, 주요 재무적 지표 등을 토대로 옐로칩 종목을 업종별로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하여 선정된 옐로칩에 대하여 해당 종목의 투자매력도를 최우선으로 포트폴리오 내의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 NH-Amundi자산운용(주)는 KOSPI를 구성하는 종목 중 옐로칩 속성을 보유했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8.06.24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억원좌)	
책임	박진호	1975	주식운용 2 본부장	34 개	약 1조5,330 억원좌	- NH-Amundi 자산운용(2015.3~현재)주식운용 -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2013.4~2015.3)주식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2000.1~2013.4) 주식운용
부책임	정희석	1977	주식운용2 본부 팀장	4개	약 442억원좌	- NH-Amundi 자산운용 (2013.12~현재)주식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 (2005.01 ~ 2013. 12)주식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주식운용2본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7.06.25 ~ 18.06.24	16.06.25 ~ 17.06.24	15.06.25 ~ 16.06.24	14.06.25 ~ 15.06.24	13.06.25 ~ 14.06.24
Allset 차세대리더 Class A1	2.88	23.62	-7.50	19.30	14.21
비교지수	1.69	19.29	-12.06	8.59	13.99

주1) 2018.08.28 이전 비교지수: (1* [MKF Yellow Index])

2018.08.28 이후 비교지수: KOSPI*100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Class A1(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투자위험은 일반위험, 특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투자위험 다음과 같음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가 및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의 경우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일반 기업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 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① 위험관리방안

- 이 투자신탁은 적정 위험수준 관리를 위해 위험을 '의도한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의도한 위험은 목표 초과수익률 달성에 필요한 위험으로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의도하지 않은 위험은 축소의 대상으로 정의하여 사전적 위험관리를 수행합니다.

· 위험관리를 위해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요인별 리스크 기여도를 분석합니다.

· Budgeting조건 하에서 펀드내, 특정업종, 특정종목에 대한 Active Risk한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 관리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등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등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17년 7월 3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참고

[집합투자기구공시정보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